

부패 없는 '클린 해남'

해남군, 공직자 청렴 실천 방안 마련

해남군이 '부패없는 클린-해남' 정착을 위한 구체적
인 실천 방안을 마련했다.

군은 11일 "금품·향응 등을 받는 공직자와 이를 북
인하거나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한 직속 상관에게도 연
대 책임을 묻는 '클린-해남' 정착을 위한 반부패 청렴
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군은 우선 ▲계약 ▲주택, 건축, 토지, 개발행위 인
허가 ▲환경분야 지도단속 ▲식품 공중위생업소 단속
등 민원인과 접촉이 많은 4개 분야를 대상으로 자체
청렴도 조사제도를 도입한다.

공직자 금품·향응 연대 책임

자체 청렴도 조사는 해당 실과의 업무자료를 무작
위로 표본 추출한 후 설문조사 등을 통해 청렴도를 평
가하는 방식이다.

또 허위출장비, 초과근무수당 부당 수령, 법인카드
편법 사용 등 관행적 번번 부조리의 근절을 위한 상시
점검제도도 시행한다.

이를 위해 공직사회 반부패 청산을 위한 클린 신고
센터를 운영키로 했다.

청렴도 우수자엔 인센티브

군은 '클린-해남' 정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전
직원이 청렴이행 서약서를 제출하는 한편 연 2회에 걸쳐
행동 강령 실천을 위한 교육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부패 공직자에 대해서는 징계 등 강력 조치하고,
부조리를 둑인한 직속 상관도 연대 책임을 지게된다.

반면 청렴도 우수 공무원에 대해서는 군수 표창을
비롯해 정기 인사 등에서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다.

김충식 해남군수는 "청렴한 공직자는 투명한 군정
을 이끌고, 투명한 군정은 해남지역의 경쟁력을 높이
게 된다"면서 "부패없는 청렴한 해남을 만들어 내겠
다"고 말했다.

/해남=박진표 기자 lucky@

장흥 전통茶 '청태전'을 아시나요

삼국시대부터 보림사 일대 전래

1,200년만에 복원 시제품 출시

장흥지역 전통차인 청태전(青苔錢)이 1천200여년만에
복원됐다.



장흥군은 삼국시대부터 보림사 일대에서 전래된 떡차
의 일종으로 차에 파란 이끼가 낀 것 같은 모습이라는 의미다.
맑고 투명한 탐색과 부드러운 맛이 돋보이는 기호
음료로 뿐 아니라 눈을 밝게하고, 해독, 변비예방, 해열 등
의 효능이 있어 약으로도 응용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장흥군 농업기술센터와 목포대 산학협력단은 지난해 5월
부터 청태전 복원에着手해 최근 시제품 출시에 성공했다.

장흥군은 올해 보림사 인근 폐교를 매입해 청태전 상설

체험장 및 차의 모든 것을 접할 수 있는 차문화센터를 조
성할 계획이다.

장흥군 보건소 금연 지도 점검

공중이용시설 527개소 대상

장흥군 보건소는 관내 공중이용시설 527개소를 대상으로 12·13일 이
틀간 금연 지도·점검에 나선다.

접검내용은 ▲흡연구역의 시설기

준 적정여부 ▲금연시설내 흡연행위
▲미성년자 담배판매행위 여부 등이
다.

모두 16개조로 구성된 점검반은 지

역내 초·중등학교와 보건의료기관,
보육시설 103개소, 담배소매인업소
226개소, 주류제조업소 1개소, 기타
공중이용시설 197개소 등을 집중 점
검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관내 11개 읍·면 보건지
소는 자체적으로 관할 지역 공중이용
시설 및 담배소매업소 등을 대상으로
지도·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장흥=박진표 기자 lucky@

장흥군 보건소 금연 지도 점검

2008년 전액국비 교육생모집

2008년 전액국비 교육생모집

제17982호

062-522-4875



보성군민 안녕 기원 농악

보성군 문화원 삼보농악회(대표 김종표)가 11일 지역을 돌며 보성 빌전과 군민 안녕을 기원하는 농악 한마당을 펼쳤다. 12개 읍·면 50여명의 회원으로 구성된 삼보농악회는 보성 좌도농악의 육성과 보존에 힘쓰고 있다.

/보성=안구일기자@kwangju.co.kr

'장성 감' 향토산업 육성

郡, 가공상품 개발·판매 10억원 투자

장성 감이 대표 향토산업으로 육성
된다.

장성군은 지역특화 품목인 감을 원
료로 한 다양한 가공상품을 개발·판
매할 수 있는 안정적 생산 체제를 갖
추고 농가소득을 늘리기 위해 앞으로
2년간 국비 등 10억원을 투자한다.

이를 위해 군은 최근 '장성감 전
략사업단'을 구성하고 감 산업화 기
반조성 및 마케팅 활성화 사업에 본
격 착수했다.

사업단은 장성군과 전남대, 황룡농
협(생산농가) 등 12명으로 구성됐으
며, 앞으로 연구용역을 통해 가공기
술 제조법을 자체 개발하고 친환경자
재 구입도 추진할 계획이다. 또 4억원
을 지원해 660㎡ 규모의 가공작업장
을 신축할 예정이다.

군은 지난해부터 전남대와 손잡고
향토산업 육성을 위한 자원 발굴조사
를 실시해 깨끗한 감을 즉석에서 단감
처럼 먹을 수 있는 탈葵감을 비롯해
감 분말을 이용한 젤리, 감 고추장 등
다양한 제품을 개발해 왔다.

또 장성감의 품질 우수성을 널리
알리기 위해 올 하반기에는 학술 세
미나를 열고 대형 유동업체나 홈쇼핑
을 통해 판매촉진에도 적극 나설 계
획이다.

한편 장성에서는 현재 1천100여 농
가, 560여ha에서 연간 8천400t의 감
을 생산하고 있다. 장성감은 다른 지
역에 비해 일교차가 커 당도가 높고
맛이 뛰어나 소비가 늘고 있다.

/장성=장필수기자 bungy@

음식폐기물 '어메이징 클린 시스템'

'유엔 공공 행정상' 1단계 평가 통과

광산구서 출품

의정서'의 규정을 충족시킬 뿐 아니라
예산 절감 효과도 거두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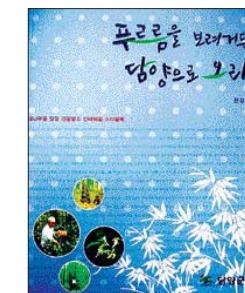
'어메이징 클린 시스템'은 앞으로
한자례 더 심사를 통과하면 2008년도
UN 공공행정상을 수상하게 된다.

한편 UN은 각국 공공기관들의 행
정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매년 6월 23
일을 '공공 행정의 날(UN Public
Service Day)'로 지정하고 양질의 제
도에 대한 시상을 실시하고 있다. 전
감길 구청장은 '광산구가 쾌적한 환
경을 갖는 것은 물론 환경오염을 예
방하는 최고의 정정 저치구가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광산=기원태기자 wtkee@

담양군 관광 안내책자 '푸르름...' 발간

담양군이 지역 관광명소를 스토리
텔링 기법으로 소개한 관광 안내책자
인 '푸르름을 보려거든
담양으로 오라'(<사진>)를 발간했다.



저자는 한국관광공사에서 주최한
관광스토리텔링 공모전 심사위원을
지낸 남도대학 한강희 교수. 이 책자
는 죽녹원과 대나무축제, 소쇄원, 식
영정, 메타세쿼이아 가로수길 등 총 5
장으로 구성돼 있으며 관광지에 대한
기본 정보 제공과 함께 이야기적 요
소를 가미한 것이 특징이다. 특히 기

는 물론 해

당 테마에 관한 정보를 '토마상식'으
로 담았다.

/담양=장필수기자 bungy@

세 일 굴

"농촌 체험 관광 육성에 주력"

김동윤 농협중앙회 보성군지부장



"지역특성을 살린 친환경 농
업과 농촌체험 관광 육성에 주력
하겠습니다"

김동윤(54) 신임 농협중앙회
보성군지부장은 "녹차미인 보
성" 등 지역 농특산물의 판로
를 확대하는 등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농협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화순 출신인 김 지부장은 광주

대를 졸업
했으며 지
난 72년 농
협에 입사,
전남지역
본부 공제카드팀장과 벌교·남순
천 지점장을 지냈다. 가족으로
는 부인 송영애(52)씨와 사이에
1남2녀가 있으며 취미는 등산.
/보성=안구일기자 gjahn@

SONY New BRAVIA SONY Family 페스티벌

■ 행사기간 : 2월 1일~5월 31일까지



소니는 화집에 관화 미술 TV회로 바다를 기부합니다!!

SONY BRAVIA 50인치	SONY BRAVIA 50인치
SONY BRAVIA 50인치	SONY BRAVIA 50인치
SONY BRAVIA 50인치	SONY BRAVIA 50인치
SONY BRAVIA 50인치	SONY BRAVIA 50인치
SONY BRAVIA 50인치	SONY BRAVIA 50인치

062-522-2000